

## 한인 경제인들 월가에 가다

KOCHAM 20주년 포럼  
증권거래소 CEO 등 강연

한인 경제인들이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하고 글로벌 경제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양규)는 14일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있는 NYSE에서 설립 20주년 기념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90여 명이 참석했다.

◆KOCHAM 위상 확인= KOCHAM이 20주년 기념행사 장소를 NYSE로 정한 덕분에 행사 참가자들은 증권거래소 객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다. 윤석환 수석부회장은 “현재 NYSE에는 삼성·LG·포스코·한국전력 등 한국기업들이 상장돼 있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최정석 지부장은 “KOCHAM이 NYSE에서 2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은 KOCHAM의 미국 내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NYSE에 한국 기업 1000억불 규모=이날 경제포럼에는 NYSE 던칸 니더라우어 최고경영자(CEO)와



14일 미한국상공회의소 설립 2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한 한인 경제인들.

국제통화기금 전 부총재를 지낸 존스 홉킨스대학의 앤 크루거 국제경제학 교수가 강사로 초청됐다.

던칸 CEO는 “NYSE에 9개 한국 기업이 상장돼 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규모”라며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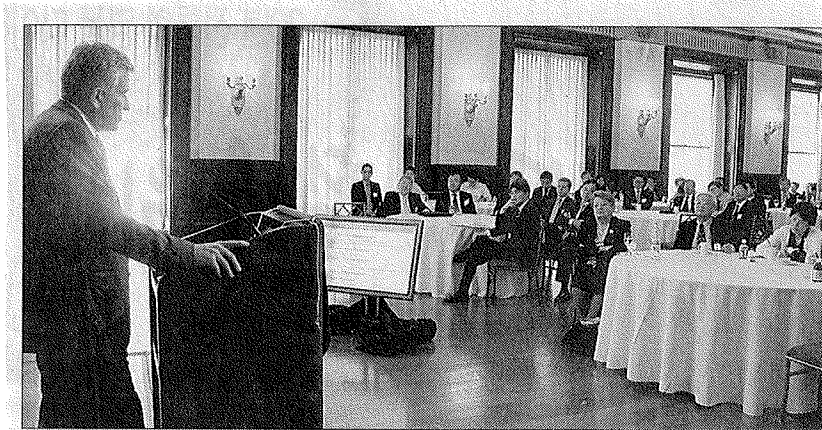
특히 던칸 CEO는 성공한 대기업들이 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 낙관=크루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10년을 지나며 미국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

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성장세가 속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 발생한 유럽발 금융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미국 경제의 회복세 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올해 열리는 대통령 선거나 저축률, 주택시장,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유럽발 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세, 소비지출 증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미국 경제는 약 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설립 20주년 기념 경제포럼이 14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KOCHAM)

## “유럽 재정위기 미 경제에 악재”

### 크루거 교수, 코참 20주년 포럼서 강연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를 지낸 크루거 교수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설립 20주년 경제포럼에서 미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유럽의 위기,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크루거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대외 경제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유럽 사태와 신흥시장에 좌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위기와 관련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유럽이 미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금융 시스템이 유럽 위기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경기 회복의 동력(모멘텀)을 다시 잃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유럽의 위기는 분명하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유럽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 50년간 많은 발전을 했으며 개도국 등 많은 나라가 이런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 NYSE CEO "언론을 믿지 말라..美경제 좋다"

뉴욕=권성희 특파원 | 2012.06.15 15:10

던칸 니더라우어 뉴욕증권거래소(NYSE) 유로넥스트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이 곳에서 여러 CEO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던 경험에 비쳐볼 때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 던칸 니더라우어 뉴욕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 최고경영자

니더라우어 CEO는 이날 NYSE에서 열린 미국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설립 20주년 기념 경제포럼에 참석해 "언론을 보면 미국 경제가 매우 고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론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유럽 채무위기와 미국 대선이라는 도전이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몇 년 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회복하고 있

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를 낙관하는 이유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활발한 나라이며 수많은 기업들이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로존 채무위기에 대해서는 "매우 더디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CEO들을 만나본 결과 유럽에 대한 생각 자체는 6개월 전보다 나아졌다"고 소개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유로존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처럼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까 의문을 품고 있지만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미국과 유럽의 의사결정 과정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로존의 의사결정 과정은 극적인 해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며 "그러니 유로존 채무위기가 "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이 결국 탈출구를 찾긴 하겠지만 극적이지 않을 것이고 한 단계씩 전진하는 방식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CEO들은 향후 3~5년간은 유럽에서 투자 기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에서 계속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아주 조금 둔화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지만 내가 만난 CEO들은 중국을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런 생각이 조만간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더라우어 CEO는 남미와 아프리카를 특히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남미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을 떠올리지만 남미의 성공 스토리는 브라질만이 아니다"라며 "NYSE만 해도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에서 기업공개(IPO)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기업들은 남미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프리카에 대해선 "최근 CEO들과 미팅할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성장 기회를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니더라우어 CEO는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싶다"며 "지금은 민간 부문이 수동적이 될 때가 아니라 모범을 보여 전면에 나서 주도해야 할 때"라고 강

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데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란 원래 이 문제의 핵심에 파고들만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미국만 해도 전체 기업의 99%가 직원 1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이런 중소기업이 언제나 주요한 일자리 공급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니더라우어 CEO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얻기가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줘야 하며 대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생 멘토와 함께 가는 2012 필리핀 명품영어캠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61512125429616&type=1>

 [프린트](#)  [Bookmark](#)

# 크루거 "유로존 어떤 결과든 불확실성은 낮출 것"

뉴욕=권성희 특파원 | 2012.06.15 15:17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전망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이지만 상당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하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를 역임한 크루거 교수는 이날 NYSE에서 열린 미국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설립 20주년 기념 경제포럼에 참석해 올해 빠르게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최근 모멘텀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런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다만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지만 1분기 성장률이 1.9%에 불과했고 4월과 5월에 유로존 위기와 경제지표 둔화가 있었던 만큼 2%가 합리적인 '중간' 전망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한 성장률은 실업률을 낮출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에도 미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약한 성장세에서 추가 양적완화(QE)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QE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로존 채무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리스의 무질서한 유로존 이탈과 유로존의 무질서한 붕괴만 아니라면 어떤 결과도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만한 시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리스나 다른 국가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연쇄적으로 유로존을 이탈해 유로존이 무질서하게 붕괴될 경우의 영향은 측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다만 "유럽 집행위원회(EC)와 개별 국가별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만큼 하나 이상의 국가가 유로존을 떠난다 해도 커다란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유로존 미래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로존의 운명은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최근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유로존과 더불어 신흥국 경제를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꼽은 뒤 "중국 전망이 가장 중요한데 과거 중국 정부가 경제를 관리해온 전력을 봤을 때 낙관할만한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현재 겪는 어려움은 국내 정치와 추가적인 정책 개혁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인도가 지난 10년간 경험한 8~9%의 성장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고 5~6%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루거 교수는 유로존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 경제가 2%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6.5~7%로 둔화되더라도 글로벌 경제는 2013년과 2014년에 빠른 성장세를 경험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인구 증가율 둔화, 글로벌 감독체제에 대한 고민 등이 전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신용대출] 무방문/무서류, 1분이내 6천만까지, 현대스위스 알프스론 신용대출 ☎ 1577-585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61512485866993&type=1>

 [프린트](#)  [달기](#)



# 매일경제



## "美 경기 회복세 둔화..유럽위기 우려"

기사입력 2012.06.15 07:01:14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 앤 크루거 교수, 코참 설립 20주년 포럼 강연

앤 크루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제 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를 지낸 크루거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KOCHAM) 설립 20주년 경제 포럼에서 미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유럽의 위기,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크루거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대외 경제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유럽 사태와 신흥시장에 좌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위기와 관련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유럽이 미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금융 시스템이 유럽 위기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경기 회복의 동력(모멘텀)을 다시 잃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유럽의 위기는 분명하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유럽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등 유로존의 무질서한 해체가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질서있는 이탈이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 역시 불안한 점"이라면서 "유럽 사태가 악화해 유럽의 수요가 줄어들면 이들 국가와 다른 개발도상국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충격이 없더라도 신흥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는 세계 경제에 불안 요

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다른 요인들보다 크지 않겠지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편파주의가 역대 선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장기적으로 인구, 국가 채무 및 균형 예산, 무역의 자유화 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 50년 간 많은 발전을 했으며 개도국 등 많은 나라가 이런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던컨 니더라우어 뉴욕증권거래소(NYSE) 최고경영자(CEO)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가 잘 해나가고 있다"고 미국 경제를 평가했다.

leesang@yna.co.kr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인쇄 | 닫기

## "美 경기 회복세 둔화..유럽위기 우려"

앤 크루거 교수, 코참 설립 20주년 포럼 강연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앤 크루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를 지낸 크루거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KOCHAM) 설립 20주년 경제 포럼에서 미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유럽의 위기,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크루거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대외 경제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유럽 사태와 신흥시장에 좌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위기와 관련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유럽이 미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금융 시스템이 유럽 위기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경기 회복의 동력(모멘텀)을 다시 잃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유럽의 위기는 분명하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유럽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등 유로존의 무질서한 해체가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질서있는 이탈이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 역시 불안한 점"이라면서 "유럽 사태가 악화해 유럽의 수요가 줄어들면 이들 국가와 다른 개발도상국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충격이 없더라도 신흥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는 세계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다른 요인들보다 크지 않겠지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편파주의가 역대 선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장기적으로 인구, 국가 채무 및 균형 예산, 무역의 자유화 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 50년 간 많은 발전을 했으며 개도국 등 많은 나라가 이런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던컨 니더라우어 뉴욕증권거래소(NYSE) 최고경영자(CEO)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가 잘 해나가고 있다"고 미국 경제를 평가했다.

lees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6-15 07:01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인쇄 | 닫기

## 앤 크루거 "그리스 유로 탈퇴, 유럽·미국에 得"

"무질서한 탈퇴 없을듯..불확실성 해소기대"

"올해 美 2.0% 성장..이머징경제-대선이 변수"

입력시간 : 2012.06.15 10:16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를 역임했던 앤 크루거(사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오히려 유럽과 미국에 득(得)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루거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뉴욕 맨해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미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망 기관에 따라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이 50%나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일부에서는 20% 줄어든 것이라고 하지만, 그리스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는 무질서한 방식으로 유로존을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가 질서 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탈퇴할 경우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유로존 각국이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다른 회원국으로의 위기 감염이나 유로존 자체의 붕괴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오히려 그는 "그런 방식의 탈퇴라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의심받고 있는 유로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유럽이나 미국 경제 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이번 주 일요일쯤이면 윤곽이 나오겠지만 그리스 정치권이 디폴트로 가는 길을 택할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할지 여전히 불확실하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며 "직접적인 충

격은 크지 않겠지만, 이는 분명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크루거 교수는 이머징 경제권도 미국 경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지목했다.

그는 "그동안 이머징 경제의 상대적인 강세는 미국에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해줬고, 실제 2009년에 1조5000억달러까지 줄었던 미국의 수출은 이머징 경제 호조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조8000억달러, 2조1000억달러로 늘어나며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브라질과 중국, 인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들 경제가 침체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지만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 유로존 상황에 따라 더 악화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불확실성으로 곱았다. 크루거 교수는 "선거 결과 자체가 불확실성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당선되고 난 후 따라올 경제정책도 불확실성의 근원"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앞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 경제 회복은 불과 두 달쯤 전만해도 가속화되는 듯하다 최근 다시 경제 회복 모멘텀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며 "아직은 방향성이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이 그다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2.4%로 점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를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며 "유로존 침체를 감안할 때 2.0% 정도가 합리적인 수치일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어 "이는 부정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실업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정도도 아니며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루거 교수에 앞서 발언한 던컨 니더라우어 NYSE-유로넥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둔화세를 일부 보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이며 세계 경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데, NYSE도 이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는 "유로존은 많은 회원국들이 하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금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정훈기자 futures@의 다른 기사보기

© 종합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인쇄 | 닫기

주소 :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20615022188&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40600000>

## 佛마저...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세계일보>

美 이견존스社, 'BBB+'로 하향  
伊는 국영기업 지분 매각 나서

미국 증권 신용평가업체인 이견존스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견존스는 프랑스가 지난 18개월간 조달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 이런 상황이 변할 것이고, 특히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정책이 금융 부문을 취약하게 만들어 은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5일 네덜란드의 ING와 ABN암로를 포함한 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유럽 부채 위기와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경영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조치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강등 은행은 모두 대규모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3개 국영기업 지분 100억유로(약 15조원) 상당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대상 기업에는 핀테크나, 사체, 시메스트 등이 포함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공공건물 등 부동산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해 부채 탕감 비용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Bol)에 따르면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 국가부채 규모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조9460억유로(약 286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윤지로 기자

입력 2012.06.15 19:00:55, 수정 2012.06.16 00:16:54

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GYE.com** COPYRIGHT © SEGYE.com All rights reserved.

## 프랑스마저... 국가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번호 63960 글쓴이 유로존쓰나미 조회 69 등록일 2012-6-15 21:33 누리17

원문주소: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63960](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63960)

佛마저...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美 이건존스社, 'BBB+'로 하향

전망도 '부정적'... 추가 강등 여지

| 입력 2012.06.15 19:05

미국 중견 신용평가업체인 이건존스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건존스는 프랑스가 지난 18개월간 조달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 이런 상황이 변할 것이고, 특히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정책이 금융 부문을 취약하게 만들어 은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코참) 설립 20주년 경제 포럼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는 시점에서 유럽의 재정위기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유럽 위기와 관련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이 미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데다 미국 금융 시스템이 유럽 위기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경기 회복의 동력(모멘텀)을 다시 잃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유럽의 위기는 분명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06-15 07:58]

인쇄하기

##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유럽위기 영향

아시아투데이 채진솔 기자 = 앤 크루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를 지낸 크루거 교수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KOCHAM) 설립 20주년 경제 포럼에서 미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유럽의 위기,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크루거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대외 경제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유럽 사태와 신흥시장에 좌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위기와 관련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유럽이 미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금융 시스템이 유럽 위기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경기 회복의 동력(모멘텀)을 다시 잃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유럽의 위기는 분명하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유럽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등 유로존의 무질서한 해체가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질서있는 이탈이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 역시 불안한 점"이라면서 "유럽 사태가 악화해 유럽의 수요가 줄어들면 이들 국가와 다른 개발도상국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충격이 없더라도 신흥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는 세계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다른 요인들보다 크지 않겠지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편파주의가 역대 선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장기적으로 인구, 국가 채무 및 균형 예산, 무역의 자유화 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 50년 간 많은 발전을 했으며 개도국 등 많은 나라가 이런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던컨 니더라우어 뉴욕증권거래소(NYSE) 최고경영자(CEO)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가 잘 해나가고 있다"고 미국 경제를 평가했다.

✉ 채진솔 기자 jinsolc@asiatoday.co.kr